

정답 및 해설

I. 자연과 사람

01 용이 되는 길

교과서 기본 알기

p.14~15

1. ① 2. ② 3. ⑤
 4. (1) 백미 (2) 조장 (3) 등용문 (4) 벽창우
 5. 助長 6. 오르다

실력 확인 하기

1. ④ 2. ⑤ 3. (1) 길다 (2) 어른
 (3) 자라다 4. ③ 5. ⑤
 6. (ㄹ), 벽창우 7. ④ 8. ③
 9. 白眉 10. 登龍門

1. 毛: 바람에 날리는 머리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상형자)
2. ① 우 ② 상 ③ 무 ④ 목
3. '長'에는 '길다', '어른', '자라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4. '龍'은 원래 음이 '룽'이지만, 단어의 앞에 쓰이면 '용'이 된다.
5. 白眼視: 진나라 때의 완적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면 자신의 눈의 흰자위가 드러나도록 흘겨보았다는 데서 유래함.
6. 碧昌牛: 평안도 벽동(碧潼)과 창성(昌城)에서 나는 크고 역센 소에서 유래함.
7. '上'은 여기에서는 '위'가 아니라 '오르다'라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8. 여기서의 '爲'는 '되다'라는 뜻이다.
9. 마량(馬良)은 눈썹에 흰 털이 박혀 있어 '白眉'라고 불렸다.
10. 登龍門: 물고기가 용문을 통과하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함.

02 아침엔 셋, 저녁엔 넷

교과서 기본 알기

p.24~25

1. ⑤ 2. ① 3. ②
 4. (1) 七步之才 (2) 朝三暮四 (3) 漁父之利
 5. 저잣거리와 같다
 6.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7. 門前成市

실력 확인 하기

1. ④ 2. ④ 3. 後
 4. ⑤ 5. ① 6. ③
 7. 오합지졸 8. ⑤
 9. 조식으로 하여금 10. 七步之才

1. • 門: (문) 문.
• 間: (간) 사이
2. ① 도시
② 허물
③ 고기 잡다
⑤ 임금
3. 세로 설명은 '向後'이고, 가로 설명은 '後代'이다.
4. '朝三暮四'와 '七步之才'에 나온 숫자를 합하면, '3+4+7=14'가 답이다.
5. 朝(아침) ↔ 暮(저녁)
6. '문전성시'라고 발음되는 고사성어이다.
7. 烏合之卒: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이라는 뜻으로,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르는 말
8. 여기서의 '以'는 '~때문에'라는 의미이다.
9. '令'은 '~로 하여금 ~하게 하다'의 의미이고, '植'은 '조식(曹植)을 의미한다.
10. 문제가 동생인 조식에게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지으라고 했는데, 조식이 그렇게 했다는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이다.

03 간지로 보는 역사

교과서 기본 알기

p.34~35

1. ⑤ 2. (1) 갑 첫째 천간 (2) 신 아홉째 지지 (3) 유) 말미암다 3. ② 4. ㄱ - 戊, ㄴ - 辛, ㄷ - 壬, ㄹ - 申
5. ~로부터 6. 4-3-2-1

실력 확인 하기

1. ③ 2. ③ 3. (1) (유) 말미암다 - (신) 아홉째 지지
(2) (간) 방패 - (우) 어조사 4. ㄱ - 己, ㄴ - 巳
5. 天干: 申 → 辛, 地支: 辛 → 申 6. 甲子, 癸亥
7. 庚子年 8. ㄱ - 自, ㄴ - 至, ㄷ - 無, ㄹ - 不
9. ④ 10. 아침에 싸움터에 나가 종일 서로 싸웠다.

- ① 신-행
② 병-래
④ 우-간
⑤ 지-기
- 情: (정) 뜻
-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잘 구별하여 알아두어야 한자 실력이 늘 수 있음에 유의한다.
- 천간과 지지의 순서와 22개의 한자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한다.
- '申'은 천간이 아니라 지지에 속하며, '辛'은 지지가 아니라 천간에 속한다.
- 60갑자는 '甲子'로 시작하여 '癸亥'로 끝난다.
- 2020년은 끝이 0이니까 천간은 '庚'으로 시작한다. 또한 지지는 12년마다 돌아지므로 2024년의 지지가 '辰'이 된다. 따라서 네 단계 앞에 오는 '子'이다.
- 自~至-: ~부터 ~까지
• 無不~: ~하지 않음이 없다
- 여기서 '自'는 '~부터'라는 뜻으로 쓰였다.
- 進兵: 싸움터에 나가.

04 역사 속 이야기

교과서 기본 알기

p.44~45

1. ② 2. ④ 3. ①
4. ① 5. ㄱ - 어찌, ㄴ - 삼다
6. 나는 비록 간이 없더라도 오히려 살 수 있으니

실력 확인 하기

1. ④ 2. ② 3. ㄱ (강) 내리다
(ㄴ) (항) 항복하다 4. ⑤ 5. ③
6. 2-1-3-4 7. ⑤ 8. ㄱ 되다 ㄴ 삼다
(ㄷ) ~이다 9. ③ 10. 神人

- ① 신-근
② 수-유
③ 간-문
⑤ 의-선
- 君 = 王
• 皇 = 帝
- ㄱ 강우: 비가 내림.
ㄴ 투항: 적에게 항복함.
- '有'는 '月'부의 2획인 글자이다.
-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모두 주관하다.
-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는 의미의 문장이다.
- ㉔의 '有'는 '어떤'으로 풀이된다.
- '爲'에는 '하다, ~이다, 되다, 삼다, 위하다' 등의 여러 뜻이 있음에 유의한다.
- ㉕의 주제는 제대로 된 때를 만나면 노예들도 장수나 재상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다.
- 보여인 '神人'이 생략된 형태이다.

Ⅱ.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05 함께 사는 세상

교과서 기본 알기

p.56~57

1. ⑤ 2. (1) 手 (2) 山 (3) 言
 3. 會 4. (1) 海 (2) 陸
 5. (1) 왕년 (2) 초래
 6. 비록 비바람이 치더라도 반드시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한다.

실력 확인 하기

1. ④ 2. ⑤ 3. ③
 4. ① 5. 必 6. ⑤
 7. 불양토양 8. ① 9. 하해
 10. ⑤

1. • 曾: (증) 일찍이
 • 會: (회) 모이다
 2.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열사'라는 뜻의 단어는 '선열(先烈)'이다.
 3. '海流'는 '해류'라고 읽는다. 이때의 '流'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興: ① ~과, ~과 더불어 ② 주다
 5. 必先赴: 반드시 먼저 가다.
 6. (가)는 식언(食言)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천언(踐言)'이라는 말은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한다는 뜻인데, '식언(食言)'과 반대의 의미가 된다.
 7. '不'은 그 뒤에 'ㄷ'이나 'ㄴ'으로 시작되는 한자가 놓이지 않으면 '불'로 읽는다.
 8. 能成其大: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풀이 순서는 '其 - 大 - 成 - 能'이다.
 9. '河海'는 '강과 바다'라는 뜻이다.
 10. 能就其深: 그 깊음을 이룰 수 있다.

06 마음을 나누며

교과서 기본 알기

p.74~75

1. ③ 2. (1) 尸, 4 (2) 目, 5 (3) 門, 11
 3. 夫 4. 友, 反
 5. (1) 서로 (2) 재상 (3) 모양
 6. 능기인, 몇이나 될 수 있겠는가?

실력 확인 하기

1. ② 2. 井, 匹 3. ②
 4. 君, 臣 5. 알고자 하다
 6. 먼저 그 신하를 보라. 7. ③
 8. ④ 9. ② 10. 여인교

1. 昔: (석) 예
 2. • 坐井觀天(좌정관천)
 • 匹夫匹婦(필부필부)
 3. 각각 '반론, 반사, 반성'으로 읽히는 단어이므로 '돌이킬 반'으로 새겨지는 한자가 들어가야 한다.
 4. • 단순어: 君, 臣
 • 복합어: 天地, 友情
 5. 欲: ~하고자 하다
 6. 先視其臣(선시기신): 먼저 그 신하를 보라. 인간 관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은연중에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先視其友: 먼저 그 벗을 보라.
 8. 能幾人(능기인): 몇이나 될 수 있겠는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
 9. '옛날에'라는 의미이다.
 10. 與人交(여인교): 다른 사람과 사귀다. 여기에서의 '興'는 '~과'라는 의미이다.

07 부끄럽지 않은 삶

교과서 기본 알기

p.84~85

1. ② 2. (1) 刀, 4 (2) 虫, 12 (3) 山, 20
 3. 貧 4. 始, 終
 5. (1) 이루다 (2) 성하다 (3) 재/성 (4) 정성
 6. 성소수야, 진실로 부끄러워할 바이다

실력 확인 하기

1. ② 2. 富, 善 3. 始
 4. (1) 成 (2) 盛 (3) 城 (4) 誠 5. 차
 6. ⑤ 7. ③
 8. 복을 받지 못했더라도 9. 종필득복
 10. 禍

1. ‘冫’의 부수는 ‘一’이다.
2. • 貧: (빈) 가난하다
• 富: (부) 넉넉하다
• 善: (선) 착하다
• 惡: (악) 악하다
3. ‘처음 시’로 새겨지는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
4. • 成: (성) 이루다
• 盛: (성) 성하다
• 城: (성) 재/성
• 誠: (성) 정성
5. ‘또’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이다.
6. 學道而不行之: 도를 배우고도 그것(도)을 행하지 않다.
‘而’는 접속사로 쓰였다.
7. 誠所羞也: 진실로 부끄러워할 바이다.
8. 見: ~을 당하다(피동)
9. 終必得福: 끝내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10. ‘재앙’을 뜻하는 글자가 필요하다.

Ⅲ. 오렐수록 새로워지는 가치

08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교과서 기본 알기

p.96~97

1. ① 2. ⑤ 3. ②, ④, ⑤
 4. (1) 반드시 (2) 마음 5. 食
 6. ⑤

실력 확인 하기

1. ③ 2. ② 3. ④
 4. ⑤ 5. ① 6. ⑤
 7. 재물을 이용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환원하
 여 명망을 얻음. 8. ①
 9. 남이 열 번에 잘하면 나는 천 번 한다.
 10. (1)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2) 오

1. ‘穀’의 부수는 ‘覀’가 아니라 ‘禾’이고, 나머지 획수는 10
이다.
2. 부수가 ‘貝’인 한자는 대부분 재물이나 돈과 관련이 있
다.
3. 材貨 → 財貨
4. • 菜食(채식)
• 穀食(곡식)
• 食堂(식당)
5. • 賣: (매) 팔다
• 買: (매) 사다
7. 재물로써 몸을 일으키다 → 재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
로부터 추앙을 받거나 명망을 얻는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8. 신분을 이용해 가렴주구(苛斂誅求)하여 재물을 모은다
는 의미이다.
9. 人: 남. 能: 잘하다. 己: 나. 千: 천 번 하다.
10. • 能: ~할 수 있다.
• 惡: (오) 미워하다/싫어하다, (악) 나쁘다/악하다

09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교과서 기본 알기

p.106~107

1. ③ 2. 汜(水), 8 3. (1) 풍부 - 넉넉하고 많음, (2) 적당 - 정도에 알맞음 4.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5. ② 6. 어 짝이 어질지 못함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실력 확인 하기

1. ③ 2. ① 3. ② 4. ④ 5. ③
6. ㉠-저울질하다 ㉡-재다 7. ③ 8. 不如
9. 의롭지 못하고서 부하고 또 귀함.
10. ⑤ 11. ④

10 시대를 아우르는 가르침

교과서 기본 알기

p.116~117

1. ② 2. ④ 3. ①
4. ③ 5.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음은 그 얼굴과 같다. 6. ④

실력 확인 하기

1. ③ 2. ① 3. ③
4. 禁 5. 덕에는 정해진 스승이 없고, 선을 위주로 하는 것이 스승이다. 6. ⑤
7. ② 8. ⑤ 9. ④
10. ⑤

1. '好'의 부수는 '女', '勝'의 부수는 '力', '泉'의 부수는 '水'이고, '戶'는 제부수 한자이다.
2. 潔 - 12획, 勝 - 10획, 猶 - 9획, 混 - 8획, 輕 - 7획
3. 富戶, 豐富
4. • 묘(墓): 대군(왕의 아들), 공주, 또는 왕자의 무덤. 혹은 일반인의 무덤
• 충(塚): 왕의 무덤이라고 짐작되는 무덤
• 릉(陵): 왕(황제), 왕비(황제비)의 무덤
• 림(林): 성인의 무덤
5. • 當爲: 마땅히 해야 함.
• 不當: 마땅하지 않음.
• 當代: 해당하는 시대
• 正當: 바르고 마땅(합당)함.
• 當然: 마땅히 그러함.
6. '度'는 '재다'의 뜻일 경우 '탁'으로 읽는다.
7. 길이를 재서 '길고 짧음'을 안다는 말
8. A不如B: A는 B만 못하다
9. 而: ~하고, 且: 또, 또한
10. 어 짝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로움은 사람의 길이다.
11. 이 경우의 '之'는 주격 조사이다.

1. 醫 - 酉, 表 - 衣, 受 - 又, 慶 - 心
2. 師弟: 스승과 제자
3. '작은아버지'가 막내가 아닌 경우에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 嚴禁 - 禁煙
6. 한문 원문으로 쓰면 '莫如兄弟'라고 표현되는 문장이다.
① 猶: 같다
② 如: 같다
③ 不如: ~만 못하다
④ 以爲: ~으로 여기다
7. 대구로 이루어진 문장이므로 '憎(증) 미워하다'의 상대자를 찾아야 한다.
8. ① 惡行(악행)
② 惡政(악정)
③ 惡德(악덕)
④ 善惡(선악)
⑤ 憎惡(증오)
9. 선을 쌓은 집
10.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음은 그 얼굴과 같다.

IV. 인간과 자연의 노래

11 익양의 새 정자에서

교과서 기본 알기

p.136~137

1. ① 2. ② 3. ⑤
4. 故人 5. 千里 6. ④

실력 확인 하기

1. ④ 2. 5 3. ①
4. ① 5. 晚煙 6. 오연 절구
7. ⑦ 山近 ∨ 暮雲合, ④ 草長 ∨ 秋雨深
8. ③ 9. ⑤
10. ㉔ - 외로운 나그네, ㉕ - 옛 친구

1. 舍 - 舌, 2획. 室 - 宀, 6획. 容 - 宀, 7획. 舌 - 舌, 0획
2. ‘可’를 쓸 때에는 ‘一 → 口 → 丿’의 순서로 써야 함에 유의한다.
3. • 客: (객) 손님
• 廣: (광) 넓다
• 甚: (심) 심하다
• 淺: (천) 얇다
4. ‘句節’은 뜻이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병렬 관계의 단어이다.
5. 대우를 이루는 시구는 대체로 해당 시구에서 같은 위치에 놓인다.
6. 오연 절구는 한 구가 다섯 글자이며, 네 개의 구로 이루어진다.
7. 오연시는 ‘○○/○○○’와 같은 형식으로 띄어 읽는다.
8. ‘暮雲’은 ‘저녁 때의 구름’이라는 뜻이다.
9. ①, ②, ③, ④에 쓰인 ‘長’은 모두 ‘길다’는 뜻이며, ⑤에 쓰인 ‘長’은 ‘어른’이라는 뜻이다.
10. 여기에서 ‘故人’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옛 친구’라는 뜻이다.

12 김 거사의 집을 찾아

교과서 기본 알기

p.146~147

1. ② 2. 뜻이 같다
3. ④ 4. 風高落葉 ∨ 滿庭除, 養病閑居 ∨
數月餘 5. ⑤ 6. 말을 세우다

실력 확인 하기

1. ② 2. ④ 3. ①
4. 庭 5. (1) 당 (2) 칠 (3) 4 6. 空, 紅, 中
7. ② 8. 實 - 晝 9. 空
10. 시냇가 다리 옆에 말 세우고 돌아갈 길 묻노라니
11. 부지

1. ‘實’ - 宀, 14획
2.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
① - 私宀, ② - 問議, ③ - 答案, ⑤ - 無限
3. ②, ③, ④는 뜻이 상대적인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⑤는 술보 관계이다.
4. 제시된 단어는 ‘校庭’과 ‘庭園’이다. 따라서 ‘마당’이나 ‘뜰’, ‘운동장’을 의미하는 한자를 찾아 넣으면 된다.
5. 압운법이나 운자, 대우법 등 근체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두도록 한다.
6. 칠언 절구의 운자는 대개의 경우 1, 2, 4구의 마지막 글자이다.
7. 칠언 절구: 한 구가 7자이며 4구로 이루어진 근체시의 한 형식
8. 맞는 시구는 ‘不知身在晝圖中’이다.
9. (산이) 텅 비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 즉 ‘빌 공’으로 새겨지는 글자를 찾는다.
10. 立馬: 말을 세우다
11. ‘不’은 흔히 ‘ㄷ’이나 ‘ㄴ’으로 시작되는 글자 앞에서 ‘부’로 읽는다.

13 연꽃을 노래함

교과서 기본 알기

p.156~157

1. ③ 2. ④ 3. (1) 陰 (2) 因
4. 고체시 5. 陰, 深, 心 6. ①

실력 확인 하기

1. ① 2. ② 3. (1) 八부, 4획
(2) 心부, 5획 4. ① 5. 夕陽
6. 鐘聲 7. ④ 8. ②
9. 예전부터 물 한 방울 적시지 않았지만
10. 청정본인심

1. ② 圓: (원) 둥글다
③ 困: (곤) 곤하다
④ 徒: (토) 무리
⑤ 探: (탐) 찾다
2. 陽地(양지)
3. ‘小’는 ‘心’의 변형 부수이다.
4. ‘淸淨’은 뜻이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유사 관계의 단어이다.
5. 夕陽: 석양빛
6. 鐘聲: 종소리
7. 從來: 예로부터
8. 운자는 ‘陰, 深, 心’이다.
9. 지금까지 한 번도 물로 씻은 적이 없다는 의미의 시구이다.
10. ‘맑고 깨끗함은 본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표현이다.

Ⅴ. 이야기 속에서 삶을 배우다

14 정승을 깨우친 농부

교과서 기본 알기

p.168~169

1. ③ 2. 不 3. (1) 동성 (2) 동
감 (3) 경이 (4) 이설 4. 心 5. 차승즉피열
6. 소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실력 확인 하기

1. ⑤ 2. ④ 3. 同
4. ③ 5. (다) - (나) - (가) 6. 황희
7. ② 8. ②
9.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10. 축물

1. • 遇: (우) 만나다
• 田: (전) 밭
• 云: (운) 이르다
• 順: (순) 순하다
2. ‘下卷’의 독음은 ‘하권’이다.
3. ‘갈을 동’으로 새겨지는 한자가 들어가야 한다. 즉, ‘同姓’과 ‘同感’이 필요한 단어이다.
4. ‘心(小)’을 부수로 하는 한자는 그 의미가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5. 전후 내용을 생각해 본다. 어느 소가 낮느냐는 질문에 귀엣말을 하는 농부의 모습에서 공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6. 황희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화이다.
7. 長短(장단): ‘길고 짧음’, ‘장점과 단점’, ‘박자’의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장점과 단점’의 뜻으로 사용된 예이다.
8.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9. 寧: 어찌. 乎: ~인가?
10. ‘짐승’이라는 의미이다.

15 눈물로 그린 그림

교과서 기본 알기

p.178~179

1. ① 2. 日 3. (1) 土 (2) 木
4. 家, 其, 在, 所, 失 5. 찾았다
6. 이를 만하다

실력 확인 하기

1. ④ 2. ① 3. ③
4. ④ 5. ② 6. 李澄
7. ⑤ 8. 인루이성조 9. ③
10. 사람

1. ‘每’의 부수는 ‘人(사람 인)’이 아니라 ‘母(말 무)’임에 유의한다.
2. 日課 - 일과
3. ‘木’을 부수로 하는 한자는 그 의미가 ‘나무’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4. • 枝: (지) 가지
• 強: (강) 강하다
5. 而: ~하고, ~하여
6. 家失其所在(가실기소재): 집에서 그가 있는 곳을 모른다.
7. 父怒而答之: 아버지가 노하여 그를 때리다. ‘而’는 순접 접속사이다.
8. 淚: (루) 눈물
9. 可謂: 이를 만하다
10. 者: 여기서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16 효녀 도리장

교과서 기본 알기

p.196~197

1. ② 2. 市
3. (1) 냉방병 (2) 약방문
4. 手(才) 5. 진심구료
6. 고향에서 그 효행을 칭찬했다.

실력 확인 하기

1. ② 2. (1) 市 → 布 (2) 布 → 市
3. (1) 病 (2) 藥 4. ③ 5. ③
6. 판교원에 이르다 7. 병기태
8. 以 9. ③ 10. 都里莊

1. 卽 - ㅁ, 7
2. • 布 (포) 베/퍼다
• 市 (시) 저자/도시
3. • 臥病(와병), 持病(지병), 冷房病(냉방병)
• 藥師(약사), 藥品(약품), 藥方文(약방문)
‘병’과 ‘약’은 뜻이 서로 상대적인 한자이다.
4. ‘手(才)’를 부수로 하는 한자는 그 의미가 ‘손’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5. 發行: 길을 떠남.
6. ‘及至’는 ‘이르다’는 의미이다. ‘板橋院’은 지명(地名)에 해당한다.
7. 幾: (기) 거의
8. 扶携以還: 부축하여 돌아오다. 여기서의 ‘以’는 ‘~로써’라는 뜻이다.
9. 鄉里稱其孝: 고향에서 그 효행을 칭찬하다. ‘鄉里’는 ‘고향’을 의미한다.
10. 이 글의 주인공이다.

17 진정한 부자

교과서 기본 알기

p.206~207

1. ⑤ 2. (1) 친영 (2) 신식 (3) 활로 (4) 대화
3. 入 4. 취십지일
5. 부황 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6. 관가의 뜰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실력 확인 하기

1. ③ 2. ⑤ 3. 出
4. (1) 동족 (2) 순수입 5. 부황자문지
6. 구름과 같다 7. ④ 8. ②
9. ~라고 여기다 10. (타) - (나) - (가) - (타)

1. 迎: (영) 맞이하다
2. ① 親善(친선)
② 新郎(신랑)
③ 活路(활로)
④ 對話(대화)
3. 算出(산출), 退出(퇴출), 呼出(호출)
4. '同族'은 '같은 겨레'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純收入'은 '총수입에서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 순수한 수입'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5. 浮黃者聞之(부황자문지): 굶주려 부황 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
6. 如雲: 구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비유적 표현
7. 取十之一(취십지일): 10분의 1을 취하다.
8. 捐千金貿米: 천금을 털어 내어 쌀과 바꾸다.
9. 以爲~: ~라고 여기다
10. 전후 내용을 생각해 본다. 제주도의 양갓집 딸로 태어났으나 기녀의 신분이었던 만덕은 양민의 지위를 되찾은 뒤, 장사를 하여 많은 재물을 모은다. 흥년이 거듭되어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겪자 만덕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Ⅵ. 품위 있는 글, 아름다운 표현

18 스승님, 우리 스승님

교과서 기본 알기

p.218~219

1. ④ 2. ② 3. 면학, 절묘, 유
사, 속집 4. 더욱 마땅히 예의를 우선으로 삼아
야 한다. 5. 술빈 관계
6. 누가 의혹이 없을 수 있겠는가?

실력 확인 하기

1. ② 2. ④ 3. 8 4. 絶妙
5. 師生 6. ① 7. 1-3-4-5-6-2
8. 의혹이 있다 9. 의혹스러우나 스승을 따르지 않다
10. ㄱ: 종결사, ㄴ: 강조를 나타내는 허사

1. 尤: (우) 더욱
2. '授'의 부수는 '手(손 수)', '傳'의 부수는 '人(사람 인)'이다.
3. '尸'은 오른쪽을 먼저 쓴다.
4. 絶 - 뛰어나다, 妙 - 묘하다
5. 師生: 스승과 학생, 선생님과 제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6. 여기에서의 '學者'는 학문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을 가리킨다.
7. '非'가 맨 끝에 풀이된다.
8. 직역을 하면 '누가 의혹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문이 된다.
9. '而'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반대 의미로 연결하는 역접의 접속사이다.
10. 둘 다 허사로 쓰이는 한자이다.

19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교과서 기본 알기

p.228~229

1. ② 2. ③ 3. ①
 4. (1) 消失 (2) 明示 5. ④
 6.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바이다.

실력 확인 하기

1. ⑤ 2. 6 3. 得
 4. ②
 5. 조금 있다가 달이 동산의 위로 떠올랐다.
 6.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면 색이 된다.
 7. ④ 8. ③ 9. ① 10. ④

- 歡 - 欠, 18
- 깨뚫는 획은 맨 나중에 쓴다. 그리고 민책받침은 가운데 부분을 쓴 뒤에 쓴다.
- 得: (득) 얻다
- 明(명): 밝다
• 暗(암): 어둡다
- 少焉: 잠시 뒤에
- 耳得之: 귀가 그것을 얻다. → 귀로(귀를 통해) 듣다.
• 目寓之: 눈이 그곳에 머물다. → 눈으로(눈을 통해) 보다.
- 그것을 가져도 금함이 없다.
- 造: (조) 짓다(만들다)
• 製: (제) 짓다(짓다)
- 無: (무) 없다
• 盡: (진) 다하다
• 藏: (장) 감추다/창고
- 吾: (오) 나
• 子: (자) 너

20 우리의 정신이 담긴 우리 글

교과서 기본 알기

p.230~239

1. ⑤ 2. ㉠: (대) 대신하다. ㉡: (별) 치다
 3. ① 4. ⑤ 5. 한나라 · 당나라의 글이 아니고 또한 송나라 · 원나라의 글도 아니다.
 6. 세상에 함께 유행하여야 한다.

실력 확인 하기

1. ② 2. ⑤ 3. ③
 4. ④ 5. ① 6. 我國
 7. (우리 나라의 글임을) 강조하려고
 8. ④ 9. 乃, 之 10. 조선

- 자전에는 ‘武 - 伐 - 聖 - 勇 - 打’의 순서로 실리게 된다.
- 早 - 일찍
• 朝 - 아침
- ‘武’와 ‘歷’은 부수가 ‘止’이다.
- 除夕(제석): 설달 그믐날 밤
- 朝夕(조식): 아침 저녁
- 東方: 우리 나라 = 我國
- 한문 표현에서는 강조하는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반어법 또는 설의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乾坤: 하늘과 땅
- 乃: 바로, 이에
• 之: ~의
- 聖朝: 당대의 왕조를 높여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서거정이 살았던 ‘조선’을 가리킨다.

1학기

중간고사 1회

p.58~61

1. ① 2. (ㄱ) (우) 소 - (오) 낮, (ㄴ) (등) 오르다 - (발) 피다 3. ⑤ 4. ③ 5. ④ 6. ③ 7. ② 8. ④ 9. ① 10.
(ㄱ) 戌 (ㄴ) 辛 11. (ㄷ) 巳 (ㄹ) 戌 12. 丙寅 13. ① 14. ② 15. ④ 16. 白眉 17. 登龍門 18. ③ 19. 무오
20. ④ 21. ③ 22. ③ 23. ② 24. ② 25. ① 26. ㉠ - 어찌, ㉡ - ~할 수 있다 27. ① 28. ⑤ 29. 雖
30. ⑤

58

1. '史'의 부수는 '口'이다.
2.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잘 구별해야 함에 유의한다.
3. <보기>의 단어는 뜻이 상대적인 한자로 이루어진 병렬 관계의 단어이다. '協助'는 뜻이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병렬 관계의 단어이다.
4. '萬里長城'의 '長'은 '길다'라는 뜻이다.
5. 고사성어에 들어 있는 동물은 '용'과 '소'이다.
6. '白眉'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7. '朝三暮四'에 3, 4가 있고, '七步之才'에 7이 있으므로 다 합하면 14가 된다.
8. 七步之才: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지을 만큼 아주 뛰어난 글재주를 이르는 고사성어이다.

59

9. '朝三暮四'는 저공이 교묘한 꾀로 원숭이들을 속인 고사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 10, 11 천간과 지지의 차례와 한자를 잘 구별해야 한다.
12. 천간과 지지에서 한 글자씩 차례로 짝지으면 60갑자가 된다. 그 순서는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 등이 된다.
13. 마량은 눈썹 중에 흰 털이 섞여 있었다.
14. ㉠은 '오르다'의 뜻이다.
15. 故: 옛, 일부터,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러므로'의 뜻으로 쓰였다.

16. 마량(馬良)은 눈썹에 흰 눈썹이 섞여 있어 '白眉'라고 불리었다.

60

17. 물고기들이 용문에 오르면 용이 된다는 데서 나온 고사성어는 '登龍門'이다.
18. '戌戌'은 '戌'로 시작하기 때문에 서기로는 끝이 '~8'년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598년이다.
19. '戌(무)'와 '戌(술)', '午(오)'와 '牛(우)'를 잘 구별해야 한다.
20. ㉠의 '自'는 '~로부터'라는 뜻이다.
21. 自~至...: ~로부터 ...까지
22. 無不~: ~하지 않음이 없다
23. 降: (강) 내리다 / (항) 항복하다. 나머지 넷은 모두 '내릴 강'으로 쓰였지만, ㉡의 '降'은 '항복할 항'으로 쓰인 예이다.

61

24. 爲: 위하다, 삼다, 되다, 이다. 여기서 ㉠은 '삼다', ㉡은 '이다'의 뜻으로 쓰였다.
25. ㉢을 풀이하면, "어찌 둘에게 서로 좋지 않겠는가?"이다.
26. 寧: 편안하다, 어찌. 可: 옳다, ~할 수 있다
27. 與: 주다, ~와, 더불어
28. 能: ~할 수 있다. '可'와 '得'이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29. "약속을 했으면 먼저 나가야 한다."가 옳다.
30. 雖: 비록 ~라 하더라도

1학기

중간고사 2회

p.62-65

1. ④ 2. ⑤ 3. ① 4. ㉠ - (항) 항복하다, ㉡ - (강) 내리다 5. ③ 6. ③ 7. 백미 - 흰 눈썹 8. ④ 9. ② 10. ㉢ 漁父之利 11. ③ 12. 乙丑 13. ② 14. ④ 15. ③ 16. 부득상 - 오를 수 없었다 17. 집 앞에 사람이 많이 모임. 18. ③ 19. ① 20.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21. 戊戌 22. ③ 23. ② 24. 어찌 둘에게 서로 좋지 않겠는가? 25. ⑤ 26. ④ 27. ② 28. ② 29. ④ 30.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62

1. '下'는 기준선 아래에 점을 찍어 '아래'라는 뜻을 나타낸 지사자이다. 나머지 넷은 모두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이다.
2. ① (오) 낮, ② (어) 고기 잡다, ③ (시) 도시, ④ (중) 일찍이
3. 集[모이다] ↔ 散[흩어지다]
4. 降: (강) 내리다 / (항) 항복하다
5. 助長: 벼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려고 이삭을 뽑아 올렸다는 데서 유래함.
6. 墨守: 제 의견이나 생각, 또는 옛날 습관 따위를 굳게 지킬 것을 이르는 말
7. '白眉'는 마량의 눈썹 사이에 흰 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생긴 고사성어이다.

63

8. 烏合之卒: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르는 말
9. 朝三暮四: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속인 데서 나온 고사성어임.
10. 漁父之利: 무명조개와 도요새가 싸우는 사이 어부가 힘들 이지 않고 둘 다 잡았다는 데서 나온 고사성어임.
11. 천간과 지지의 순서와 한자는 외워 둘 필요가 있다.
12. '甲子年' 이듬해는 '乙丑年'이다.
13. '中'의 부수는 '丨'이다.
14. '對曰'은 '대답하여 말하다'라는 뜻이다.
15. '江海大魚'는 강과 바다에서 모여든 큰 물고기라는 뜻으로

큰 뜻을 품고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64

16. 不得(부득): ~할 수 없다
17. 이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는 '門前成市'이다.
18. 여기서 '爲'는 '짓다'의 뜻으로 쓰였다.
19. 自~至...: ~로부터 ...까지
20. 無不~: ~하지 않음이 없다
21. 서기로 '~8'로 끝나기 때문에 '戌'로 시작되고, '개띠'이므로 '戌'이다.
22. ㉢의 '爲'는 '~이다'의 뜻으로 쓰였다.
23. ㉠ 항장, ㉡ 하강, ㉢ 강우, ㉣ 투항. '降'이 '내릴 강'으로 쓰인 경우는 ㉡과 ㉣이다.

65

24. 豈~哉: 어찌 ~하겠는가?
25. ㉢의 '主'는 '주관하다'의 뜻이다.
26. ㉠의 '故'는 '그러므로'의 뜻이다.
27. ... 그러므로 그 큼을 이룰 수 있었고, ... 그러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었다.
28. 踐言: 말을 실천으로 옮김.
29. ㉡와 ㉢는 작은 것도 가려서 버리지 않는 포용(包容)을 강조한 말이다.
30. 다른 사람과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먼저 가고, 비록 비바람이 치더라도 반드시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한다.

1학기

기말고사 1회

p.119~122

1. ⑤ 2. (ㄱ) (천) 하늘, (ㄴ) (부) 남편/사내 3. ④ 4. 욕식기인 5. ⑤ 6. ② 7. ③ 8. ④ 9. ② 10. ② 11. ① 12. 악할 악 13. ⑤ 14. ③ 15. 몸으로써 재물을 일으킨다. 16. ⑤ 17. ② 18. 己 19. ② 20. 적당, 당직 21. ④ 22. 不如 23. ⑤ 24. ① 25. 古, 弟 26. ③ 27. ① 28. ③ 29. 而 30. ④

119

1. ① 幾: (기) 몇. ② 坐: (좌) 앉다. ③ 射: (사) 쏘다. ④ 首: (수) 머리
2. 天: (천) 하늘. 夫: (부) 남편/사내
3. • 真相: 사물의 참된 모습
• 進上: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임금·고관에게 바침.
4. 識: (식) 알
5. 知心(지심): 마음을 아는 사람
6. ‘之’는 ‘그’의 뜻이다.
7. 巖: (암) 바위
8. 惡行 - 악행

120

9. 成: (성) 이루다. 盛: (성) 성하다. 城: (성) 재/성. 誠: (성) 정성
10. 誠所羞也: 진실로 부끄러워할 바이다.
11. 終必得福(종필득복): 반드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12. 爲惡(위악): 악을 행하다.
13. ① 品 - (품) 물건. ② 思 - (사) 생각. ③ 四 - (사) 넷. ④ 美 - (미) 아름다울
14. 事 - (사) 일
15. 不仁者(불인자)는 以身發財(이신발재)니라.: 어질지 못한 사람은 몸으로써 재물을 일으킨다.
16. 視而不見(시이불견):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121

17. 人一能之: 남이 한 번에 잘하면
18. 己: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뜻한다.
19. 猶 - (유) 오히려, ‘犬’부 9획
‘水’를 부수로 하는 한자: 潔, 淑, 浴, 泉
20. 適當(적당), 當直(당직)
21. 富戶(부호), 豐富(풍부)
22. A不如B: A는 B만 못하다(B가 A보다 더 낫다는 의미의 표현)
23. 浮雲
24. 仁 + 人心也: ‘주어’+ ‘서술어구’로 주술 구조의 문장이 다.

122

25. • 今(금) 이제 ↔ 古(고) 예
• 師(사) 스승 ↔ 弟(제) 제자
26. 凡今之人: 무릇 지금의 사람
27. 德無常師: 덕에는 정해진 스승이 없다.
① ④ ② ③
28. 積善之家(적선지가)에 必有餘慶(필유여경)이라.: 선을 쌓은 집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29. 而: ~하나, ~하더라도(역접)
30. 人心之不同 如其面焉: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음은 그 얼굴과 같다.

1학기

기말고사 2회

p.123~126

1. ③ 2. 君, 臣 3. 서로, 재상, 모양 4. ⑤ 5. ⑤ 6. ① 7. ⑤ 8. ① 9. 비소수야 10. ④ 11. ④ 12. ⑤
 13. 禍 14. 심부재언 15. ② 16. 不 17. ⑤ 18. ② 19. 己 - 之 - 千 20. ④
 21. 不義而富且貴 22. 浮雲 23. ① 24. ③ 25. ③ 26. ⑤ 27. 莫如兄弟 28. ⑤ 29. ③ 30. ③
 31. ①

123

1. 視: (시) 보다
 • 欲知其父(욕지기부)면 先視其子(선시기자)하라.: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2. • 단순어: 하나의 의미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 君, 臣 등
 • 복합어: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天地, 友情 등
 3. 相(상) - 서로, 재상, 모양
 4. 대우(對偶): 서로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이용하여 상반되거나 상관된 의미를 표현하는 수사법
 5. 滿天下(만천하): 천하에 가득하다
 6. 昔者: 옛날에
 7. 知: (지) 알다. 矢: (시) 화살
 8. 貧且賤(빈차천): 가난하고 또 천한 것

124

9. 非所羞也(비소수야): 부끄러워할 바가 아니다.
 10. 誠所羞也: 진실로 부끄러워할 바이다.
 11. 爲善而不見福(위선이불견복): 선을 행하고서 복을 받지 못하다.
 12. 終必得福(종필득복): 끝내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된다.
 13. 終必得禍(종필득화): 끝내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14. ‘不’은 ‘ㄷ’이나 ‘ㅈ’ 앞에서는 ‘부’로 발음된다.
 15. ㉠ - 視(보아도), ㉡ - 聽(들어도), ㉢ - 食(먹어도)

16. 不仁者(불인자): 어질지 못한 사람

17. 以: ~로써

• 以身發財(이신발재): 몸으로써 재물을 일으킨다.

125

18. 人一能之(인일능지): 남이 한 번에 잘하다.
 19. 己千之: 자기는 그것을 백 번 하고
 20. 好之者(호지자)는 不如樂之者(불여락지자)니라.: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21. 원관념 - 의롭지 않은 부귀
 22. 보조 관념 - 뜬구름
 23. ㉠ - 仁(어질 인), ㉡ - 義(옳을 의)
 24. 여기서의 ‘之’는 주격 조사로 쓰였다.
 25. 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 어짊이 어질지 못함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126

26. ㉠ 愛憎 - 애증, ㉡ 拜受 - 배수, ㉢ 今昔 - 금석, ㉣ 古典 - 고전
 27. 莫如: ~와 같은 것은 없다
 28. 主善爲師(주선위사): 선을 위주로 하는 것이 스승이다.
 29. 必有餘慶(필유여경):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30. 愛而知其惡(애이지기악)하며 憎而知其善(증이지기선)하라.: 사랑하더라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더라도 그 선한 점을 알라.
 31. 之: ~이(주격 조사)

2학기

중간고사 1회

p.180~183

1. ⑤ 2. ② 3. ① 4. ② 5. ② 6. ② 7. (ㄱ) 나이, (ㄴ) 해 8. (ㄱ) (성) 성씨, (ㄴ) (성) 성품 9. ④ 10. ③ 11. ② 12. 心 13. ① 14. ③ 15. ⑤ 16. (4)(3)(1)(2)(7)(5)(6) - 다리 옆에 말 세우고 돌아갈 길 묻노라니 17. ② 18. ④ 19. 종래불착수 20. ⑤ 21. ② 22. ⑤ 23. ③ 24. 彼 25. (부) 다시 26. ③ 27. ③ 28. 찾았다 29. 어촌에는 저녁 연기 자욱하네. 30. 뜰

180

- 나머지 넷은 부수가 모두 ‘土’이며, ‘田’은 제부수로 쓰이는 한자이다.
- 뜻과 음이 합해진 형성자를 찾는 문제이다. 案: 安(음 부분)+木(뜻 부분)
- 深[깊다] ↔ 淺[얕다]
- ① 布: (포) 퍼다, ③ 存: (존) 있다, ④ 藥: (약) 약, ⑤ 持: (지) 가지다
- 問議: 물어서 의논함.
- ②는 ‘當代’라고 써야 옳다.
- 年: ‘나이’, ‘해’ 등의 뜻으로 쓰임.
- 모양이 비슷한 한자의 음과 뜻을 구별한다.

181

- 故人: ① 죽은 사람, ② 옛 사람, ③ 옛 친구. 여기서는 ③의 뜻으로 쓰였다.
- 秋雨: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을 주는 시어이다.
- 오연 절구의 운자는 짝수구의 마지막 글자이므로, ‘深’과 ‘心’이다.
- 대우가 되는 구절에서는 한자의 위치도 거의 일치한다.
- ‘不’은 ‘ㄷ’과 ‘ㄴ’으로 시작하는 글자 앞에서는 ‘불’이 아니라 ‘부’로 읽는다.
- 滿地紅: 낙엽이 떨어져 온땅을 가득 물들였다는 뜻이다.
- “모르는 새 이내 몸도 그림 속에 들었구나.”라는 뜻이다.
- 풀이 순서 대로 숫자를 나열해 본다.

182

- ②는 시각적 심상이 뛰어난 시구이다.
- 고시이기는 하지만 운율을 잘 지킨 시이다.
- 여기에서의 ‘著’는 ‘나타날 제’가 아니라 ‘붙을 착’으로 쓰였다.
- 나머지 넷은 모두 수식 관계이며, ㉠은 병렬 관계이다.
- 고체시는 당나라 이전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진 시체(詩體)이다.
- ‘寧’은 여기에서는 ‘어찌’의 뜻으로 쓰였다.

183

- ‘田父’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음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 此 ↔ 彼
- 復: (복) 돌아오다, (부) 다시
- 나머지는 모두 ‘李澄’의 행동이며, ㉠의 주체는 ‘家[집안 사람들]’이다.
- 주인공은 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락에 올라가 그림을 그린 것이다.
- 三日乃得: 사흘이나 지나서야 찾았다.
- 여기서 ‘足’은 ‘가득하다’, ‘자욱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 庭: (정) 뜰 ≡ 除: (제) 뜰, 없애다

2학기

중간고사 2회

p.184~187

1. ⑤ 2. ② 3. ④ 4. (ㄱ) 날, (ㄴ) 해 5. (ㄱ) (원) 둥산, (ㄴ) (원) 둥글다 6. ② 7. ③ 8. ① 9. ③ 10. ① 11. ③ 12. 千里 13. 옛 친구 14. ① 15. ① 16. ④ 17. ③ 18. ④ 19. ① 20. 예전부터(예로부터) 21. ④ 22. ① 23. ⑤ 24. ① 25. (부)다시 26. 長短 27. ⑤ 28. ② 29. 李澄 30. ~할 만하다(~할 수 있다)

184

1. '來'의 부수는 '人'이다.
2. ① 客: (객) 손, ③ 每: (매) 매양, ④ 晝: (주) 낮, ⑤ 枝: (지) 가지
3. 庭: (정) 뜰, 園: (원) 뜰
4. '日'에는 '날'이라는 뜻과 '해'라는 뜻이 있다.
5.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6. 여기서는 '訪問'이라고 써야 옳다.
7. ① 姓: (성) 성씨, ② 陰: (음) 그늘, ④ 果: (과) 결과, ⑤ 質: (질) 묻다
8. 근체시는 5언과 7언이 있다.

185

9. 暮: (모) 저물다, 저녁
10. 주술 관계를 찾으면 된다. 草長: 풀이 길다. 日出: 해가 뜨다.
11. 오언 절구의 운자는 2, 4구의 끝에만 있다.
12. 여기에서의 一燈(한 등)과 千里(천 리)는 서로 대(對)가 된다.
13. 여기서는 '친구'라는 의미이다. 故人: ① 죽은 사람, ② 옛 사람, ③ 친구
14. '四山'이란 사방에 있는 산, 즉 온산을 이른다.
15. 秋陰: 가을 구름. 또는 가을의 음산한 기운
16. 칠언시는 대개의 경우 '네 자/세 자' 단위로 두 부분으로 띄어 읽는다.

186

17. '大葉'의 바른 독음은 '대엽'이다.
18. '不著水'는 연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암묵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
19. 이 시의 형식은 오언 고시이다.
20. 從來: 예전부터, 예로부터
21. 著: (저) 나타나다 / (착) 붙다. 여기서는 '붙을 착'으로 쓰였다.
22. ② ~와, ③ ~로 하여금 ~하게 하다, ④ 그것, ⑤ 드디어

187

23. 則: ~하면
24.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의 뜻이다.
25. 復: (복) 돌아오다 / (부) 다시. 여기서는 '다시 부'로 쓰인 예이다.
26. 이 글의 주제는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27. ㉠~㉣는 모두 풀이 순서가 우리말과 반대(뒤 → 앞)이다.
28. 三日乃得: 사흘이나 지나서야 찾았다.
29. 父怒而荅之: 아버지가 노하여 그를 때리다. 여기서 '之'는 '李澄'을 가리킨다.
30. 可謂: ~라고 이를 만하다, ~라고 할 수 있다

2학기

기말고사 1회

p.241~244

1. ④ 2. ① 3. ② 4. ① 5. 향리칭기효 6. ② 7. ② 8. 천금을 털어 내어 쌀과 바꾸었다 9. ① 10. 이활친
 족 11. ② 12. ③ 13. 옛날의 배우는 사람 14. ⑤ 15. 누가 의혹이 없을 수 있겠는가? 16. ④ 17. ⑤ 18.
 ③ 19. ③ 20. ③ 21. 色 22. 취지무금 23. ③ 24. ⑤ 25. 非 26. ② 27. ② 28. ② 29. ①
 30. 於 31. ⑤

241

1. 布: (포) 베/퍼다
2. ① 布: (포) 퍼다. ② 巾: (건) 수건. ③ 市: (시) 시장. ④ 士: (사) 선비. ⑤ 服: (복) 옷
3. 卽: (즉) 곧. 日: (일) 날
4. 扶携以還: 부축하여 돌아오다
5. 鄉里稱其孝(향리칭기효): 고향에서 그 효성스러운 행동을 칭찬했다.
6. 事聞(사문)하니 賜都里莊綿布(사도리장면포)하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니 도리장에게 면포를 내려 주었다. (칭찬의 의미)
7. 迎: (영) 맞이하다
8. 捐千金買米(연천금무미)라.: 천금을 털어 내어 쌀과 바꾸었다.

242

9. 十之一(십지일): 10분의 1
10. 以活親族(이활친족): 친족을 살리다
11. 浮黃: 오래 끓주려서 살가죽이 뜰려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12. 若: ~와(과)
13. 者: 여기서는 '사람'의 뜻
14. 人非生而知之者(인비생이지지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15. 孰能無惑(숙능무혹): 누가 의혹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의

혹이 있다는 의미)

16. 終不解矣: 끝내 풀리지 않을 것이다.

243

17. ① 留學 - 유학 ② 教師 - 교사 ③ 生絲 - 생사 ④ 素朴 - 소박
18. 統: (통) 거느리다/합치다
• 統治(통치), 統合(통합)
19. 江上之清風: 강가의 맑은 바람
20. 耳得之而爲聲(이득지이위성):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다.
21. 目寓之而成色(목우지이성색): 눈으로 보면 색이 되다.
22. 取之無禁(취지무금): 가져가도 금함이 없다.
23. 無盡藏: 다함이 없는 창고
24. 吾與子之所共樂: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바이다.

244

25. 亦非宋元之文: 또한 송나라 · 원나라의 글도 아니다.
26. 乃我國之文也: 바로 우리나라의 글이다.
27. 并行於天地間(병행어천지간): 세상에 함께 유행하여야 한다.
28. 수식의 기능을 한다.
29. 始: (시) 처음 / 비롯하다
30. 盛於高麗(성어고려): 고려 때 융성했다.
31. 聖朝: 당대의 왕조를 높여 부르는 말로 '조선'을 가리키는 말

2학기

기말고사 2회

p.245~248

1. ② 2. 手(才) 3. 내가남복 4. ① 5. ⑤ 6. 도리장에게 면포를 내려 주었다 7. 是 8. 연천금무미 9. ③
 10. ④ 11. ⑤ 12. ⑤ 13.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 14. 解惑 15. 숙능무혹 16. 惑 - 而 - 師 - 從 - 不 17.
 ③ 18. 教 19. ② 20. ② 21. 成 22. 용지불갈 23. ⑤ 24. ③ 25. 文 26. ② 27. ⑤ 28. 고구려,
 백제, 신라 29. 盛 30. 극어성조 31. 吾

245

1. 藥師(약사), 藥品(약품)
2. ‘手(才)’를 부수로 하는 한자는 그 의미가 ‘손’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3. 乃假男服(내가남복): 이에 남자 옷으로 꾸며 입다.
4. 病幾殆(병기태): 병이 거의 위태하였다.
5. 盡心救療(진심구료): 마음을 다하여 구원하여 치료하다.
6. 賜都里莊綿布(사도리장면포)하다.: 도리장에게 면포를 내려 주었다.
7. 於是(어시): 이에
8. 捐千金貿米(연천금무미)라: 천금을 털어 내어 쌀과 바꾸었다.

246

9. 十之一(십지일): 10분의 1
10. 其餘盡輸之官(기여진수지관):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보냈다.
11. 集官庭如雲(집관정여운): 관가의 뜰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12. 活我者萬德(활아자만덕): 나를 살린 자는 만덕이다.
13. 必有師(필유사):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풀이하는 것이 좋다.
14. 師者(사자)는 所以傳道(소이전도)·授業(수업)·解惑也(해혹야)라.: 스승이란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 주고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이다.

247

15. 孰能無惑(숙능무혹): 누가 의혹(스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16. 惑而不從師: 의혹스러우나 스승을 따르지 않다. 올바른 지 않은 배움의 태도를 뜻한다.
17. 其爲惑也(기위혹야): 그 의혹됨은
18. 學(학) 배우다 ↔ 教(교) 가르치다
19. 江上之清風與山間之明月: 강가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맑은 달
20. 耳得之而爲聲(이득지이위성): 귀로 (그것을) 들으면 소리가 된다.
21. 目寓之而成色(목우지이성색): 눈으로 보면 색이 된다.
22. 用之不竭(용지불갈): 써도 다하지 않다.
23. 앞에서 언급된 ‘江上之清風與山間之明月(강가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맑은 달)’을 뜻한다.
24. 吾與子之所共樂: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바이다.

248

25. 我東方之文: 우리 동방의 글
26. 亦非宋元之文: 또한 송나라·원나라의 글도 아니다.
27. 歷代之文(역대지문): 역대 중국의 글
28. 始於三國(시어삼국): 삼국에서 비롯되다.
29. 盛於高麗(성어고려): 고려 때 융성했다.
30. 極於聖朝(극어성조): 조선에서 가장 발달하였다.
31. ‘나’ 또는 ‘우리’를 뜻하는 한자가 필요하다.